

- 최근 3년간의 생산량을 보면(표 3) 채소류, 과채류, 엽채류, 근채류, 조미채소의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입대응품목 (배추, 당근, 양파 등)에 대한 국내 시장 확보 및 수출 품목 (파프리카, 참외, 토마토 등)의 수출 활로 개척의 극대화가 필요함
- 곡류, 채소류 및 과실류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중 2012년 채소류의 총 생산량은 7,518,420톤으로 52%를 차지하고 있음(표 3). 따라서 채소류의 식중독균 및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임

품목	재배면적 (천ha)			생산량 (천톤)		
	2010년	2011년	2012년	2010년	2011년	2012년
채소류	229.2(15.4)	242.3(16.6)	224.7(15.6)	7,894.39(51.9)	9,120.13(55.8)	7,518.42(52.0)*
과채류	48.3	46.6	48.4	2,052.20	1,932.95	2,067.74
엽채류	43.4	53.7	41,765	2,264.87	3,270.67	2,327.04
근채류	24.6	25.9	18,304	1,141.46	1,330.49	908.52
조미채소	112.9	116.1	116,226	2,435.87	2,586.02	2,215.11

표 3 전체 농산물에서 채소류 (과채류, 엽채류, 근채류, 조미채소)의 비중*(%)